제2공항 갈등조정협 출발… 논의 방향 주목

오는 5일 첫 회의… 도민 의견수렴 방식·절차 등 마련 본격
찬성 주민 단체 불참 속 범도민추진위 "대표성 명확히 해야"

제주 제2공항의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해 제주도에 권고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오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운영규칙, 향후 운영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월 2~3회 회의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과 의견수렴 방식·절차를 집중 논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설명과 주제별 토론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장기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의견수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국무총리실 소관 갈등관리 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조정위원 7명과 찬반단체 추천인, 공항 예정지 주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인 4명, 관계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조정위원은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 ▷전형준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본부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등이다.

이해관계인은 ▷김형주 전 난산리장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 등 4명이다.

그러나 제2공항 찬성 주민들이 속해 있는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회장 오병관), 제2공항 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기)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신 찬성 측으로 관광협회가 추천한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오병관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에 협의회에 들어간 찬성 측 추천 인사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다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으로 참여한 김형주 전 난산리장은 확실한 반대론자"라며 "공정성과 대표성이 없는 협의회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구성을 중단하고 만약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면 대표성과 중립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7년 1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3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으로 그 기간 협의회 운영을 보고 도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지금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거점형 성평등센터 설치 앞두고 운영 방향 모색

도, 제주형 성평등 추진체계 확장 위한 정책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복지이음마루 회의실에서 '제주형 성평등 추진체계 확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 성평등센터 설치 확대 추진과 연계해 2027년 거점형 성평등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주에 적합한 센터의 역할과 기존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 읍면동까지 전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 기관과 사업의 역할,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전략체계 수립 연구'를 추진했다.

포럼에서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전문성과 민간의 현장 경험을 결합할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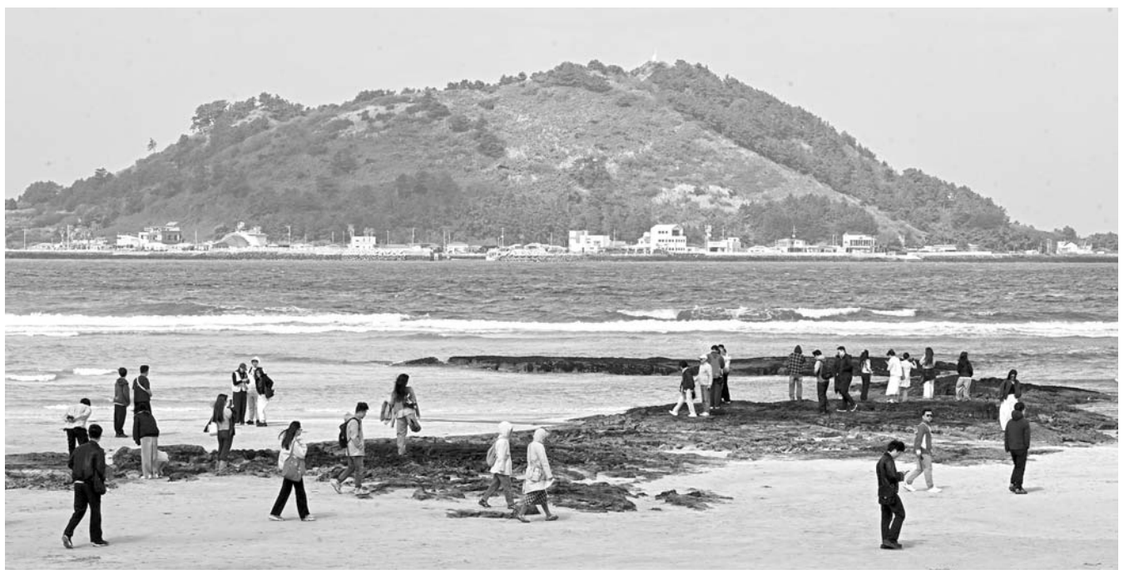
연구진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 정책지원 기능을 연계하고, 도민이 생활 속 성평등 과제를 발굴해 실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예산 개선으로 연결하는 협력 절차도 제안했다. 정책 반영 여부와 추진성과를 점검해 후속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포함했다.

센터 운영 방안으로는 정책지원, 교육, 현장활동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방안과 전문적인 정책지원과 주민밀착형 사업의 역할을 나눠 연계하는 안을 함께 검토한다.

제주도는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성평등센터 설치·운영 방향과 기존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을 바다 만끽 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가을 바다경치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어르신 틈새돌봄' 상시 지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4시간 운영

서귀포시가 24시간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지원을 상시 운영하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는 가족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상시 운영 중인 '어르신 틈새돌봄(단기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기보호는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단기간 숙식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남원읍 소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정원은 4명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3등급 기준 1일 9500원이며, 기저귀와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배달음식·무인카페 위생점검

서귀포시, 20여곳 대상

서귀포시가 일교차가 큰 가을철을 맞아 배달음식과 무인카페 등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과일 찹쌀떡, 샌드위치 등 배달 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식품판매점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로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우선 선정했다.

시는 무인카페에 대해서는 자판기 내부 세척·소독과 일일 점검표 기록·비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격표와 함께 중량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 현장점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해 점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 속도

내년 7개 사업, 22개 농가·법인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이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내년 7개 사업, 22개 농가·법인으로 늘리고 사업비 5억4000만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올해 4개 사업, 14개 농가·법인에서 추진한 국비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3개, 대상은 8곳 늘었다.

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농가의 관심과 수요에 맞춰 7개 기술을 보급한다. 7개 기술은 젖 뗀 새끼돼지 동애등에 분말 급여로 생산성 높이기,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의 방란줄이기, 소·말 등 대가축의 곰팡이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항곰팡이제 활용, 산란계 고온 스트레스 저감, 인공지능(AI) 기반 어미 돼지 임신진단 자동화, 복합센서·인공지능 기반 대가축 번식률 향상, 적외선 숙성장치를 활용한 소고기 숙성육 생산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법인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027년 2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선정된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올해 시범사업의 분야별 효과를 분석해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는 농가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올해 2억9000만원을 들여 안정 생산기술과 피해예방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기술을 보급했다.

양원종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귤림 문화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체험 한마당
일시 2026년 11월 8일(일) 09:00~15:00
장소 오현단 및 제주읍성 일원
□ 행사 일정
09:00 개회식
09:20 사자소학 성독 체험
10:00 제주어로 대화하기
10:40 제주민요 따라 부르기
11:00 귤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13:00 오현단 및 제주읍성 역사 이야기(스토리텔링)
□ 상설 체험 및 부대행사
09:00~15:00
- 전통 활쏘기·투호·팽이치기·캘리그라피 체험
- 플리마켓(공방 작품 및 예술 작품 전시·판매)
- 중고 물품 교환·판매
주최: 국가유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귤림서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